

唐代離別詩의 典型的 特徵 연구*

고진아**

目 录

1. 들어가며
2. 中國 離別詩의 淵源과 발전 과정
3. 唐代 離別詩 興盛의 原因과 特徵
4. 唐代 離別詩의 詩想 전개방식과 意象의 활용
5. 나오며

1. 들어가며

離別의 정확한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헤어짐 또는 갈리어 떨어짐”¹⁾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한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生離別 또는 死別의 형태로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이별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체험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다. 離別詩는 이러한 이별을 겪을 때 지어진 詩를 말한다. 따라서 離別詩에는 주로 離別을 겪으면서 느끼는 심리적 갈등과 절망 그리고 離別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등 이별로 인해 촉발된 감정이 담겨있다. 이때 離別 행위는 단순히 공간적인 거리의 떨어짐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離別詩에는 공간적·심리적 離別의 隔離에서 오는 情緒가 모두 표현되어 있다. 이에 공간적·심리적 隔離에서 오는 離別의 情緒를 詩化한 詩를 離別詩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195)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강사.

1) 이희승 편저『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81 2900쪽.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離別에 임하여 창작되는 送別詩·餞別詩, 留別詩 등도 모두 離別의 情緒를 詩化한 詩에 해당되므로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離別詩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離別詩의 淵源은 어디서 유래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전되었는지? 離別詩가 唐代에 가장 흥성했던 원인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唐代 離別詩의 詩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애용되었던 意象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당대 이별시의 전형적 특징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중국 離別詩 연구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각 개별 詩人들의 離別詩에 대한 연구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면 中國 離別詩에 대한 연구가 심화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中國 離別詩의 淵源과 발전과정

『論語』의「憲問」에 보면 “선비가 편안한 거처를 품고 있으면 선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²⁾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처럼 중국의 선비란 ‘遊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온 천하를 漫遊하면서 공부하고 벼슬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그들의 命運이었다. 이러한 풍부한 이별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中國의 離別詩는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離別 時의 슬픔을 오히려 아름답게 표현하는 情感 특징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중국 민족 특유의 문화 傳承과 심리적 관습에서 기인된 것으로 각 시대의 지리조건·정치·경제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발전해왔다.

離別詩의 淵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詩經』의 「 風·燕燕」·「 風·擊鼓」·「秦風·渭陽」등의 작품들이 中國 離別詩의 濫觴에 해당된다. 이중 「 風·燕燕」을

2) 王雲五主編『論語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213쪽.

“士而懷居, 不足以爲士矣.”

보면 다른 마을로 시집보내는 아가씨를 배웅하는 이별장면의 묘사와 이별에서 오는 슬픔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잘 어우러져있다.

제비 날아가는데,
 날개 짓이 고르지 못하네.
 아가씨 시집을 간다하니
 멀리 들에서 배웅을 하는데
 바라봐도 보이지 않으니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하는구나.³⁾

또 屈原 역시 작품 속에 여러 차례 離別을 소재⁴⁾로 노래하고 있으며, 이별의 슬픔에 대해 적극적으로 묘사한 「少司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말없이 들어와 인사도 없이 나가네
 회오리 바람타고 깃발에 실려
 슬픔은 생이별보다 더한 것 없고
 즐거움은 새로 만남보다 더한 것 없는데
 연꽃 옷, 혜초 띠 두르고
 갑자기 왔다가 홀연히 떠나가시는구나.⁵⁾

屈原은 여기서 “슬픔가운데 생이별만한 슬픔은 없고, 즐거움 가운데 새로운 만남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표현하여 이별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3) 江陰香 譯註『詩經譯註』北京中國書店 1983, 5쪽.

“燕燕于飛, 差池其羽. 之子於歸, 遠送於野. 瞻望弗及, 泣涕如雨.”

4) 곽말약『屈原賦今譯』上海 상해서점출판사 26쪽.

『楚辭』「河伯」“手交分東行, 送美人南浦”

5) 곽말약 앞의 책 24쪽.

『楚辭』「少司命」“入不言兮出不辭, 乘回風兮載雲旗. 悲莫悲兮生別離, 樂莫樂兮新相知. 荷衣兮蕙帶, 儵而來兮忽而逝.”

나 지대한지 표현했다. 이처럼 離別은 점점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점점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인생의 가장 슬픈 경험인 이별을 소재로 한 離別詩 또한 많이 창작하게 되었다.

漢代에는 蘇武가 남쪽으로 돌아갈 때 李陵이 지었다는 五言詩 「李陵送別詩二十首」가 전해오는데 離情 가득한 詩句들이 풍부하며, 또 작자미상 미상으로 전해오는 이별시 작품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친구·부부·형제간의 離情을 표현하고 있어 當時에 어떤 내용의 詩를 別詩라고 불렀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이어 魏晉 시기를 보면 처음에는 離別詩가 그다지 많지 않고 「古詩十九首」같은 작품에서 游子思婦의 情感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曹植에 이르러 그가 개인적 이별 상황과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함께 考慮하여 離別詩의 창작을 시도함으로써 離別詩의 시야가 확대된다. 그의 「送應氏」를 보면 다음과 같다.

北邙山 비탈길에 올라가
저 멀리 洛陽山을 바라본다.
洛陽은 어찌 이리 적막한가?
궁궐과 가옥이 모조리 불타 없어졌구나.
담장들은 전부 스러지고 무너지고
그 자리엔 가시나무들만 하늘을 찌를듯하네
그 옛날의 노인네는 보이지 않고
이제 새로 자란 어린애들만 보이는구나.
걸음 옮겨도 다닐 만한 길은 없고
황폐해진 밭은 다시 경작하는 사람 없다
나그네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으니
두령과 두령사이 길 모르겠네.
들 한 가운데 있으니 어찌나 쓸쓸한지!
천 리에 사람 집 연기조차 없구나.

늘 내가 머물던 곳이라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말조차 나오질 않는구나.⁶⁾

이시는 曹植이 부친의 馬超 정벌에 따라 가다가 낙양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응씨 형제(응창과 응거)를 만나 북쪽으로 가는 그들을 배웅하며 지은 것이다. 이시는 총 2수 가운데 첫 번째 시로 북망산에 올라 董卓의 난으로 파괴된 낙양의 황폐한 모습과 전란의 상처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느낀 感懷를 詩化 한 것이다. 이 시기 離別詩는 내용적으로 성숙하여 점차 古典詩의 한 門類로 자리를 잡게 된다. 何遜의 「臨行與故游夜別」을 한번 더 살펴보자.

지난 몇 해 여럿이 함께 해오다,
하루아침에 사람들과 헤어지게 됐는데,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간 강물이
아직까지 서쪽으로 돌아온 적 없었지
밤비는 빈 계단에 떨어지고,
가물거리는 새벽 등은 떠날 방을 비추는데,
서로가 아쉬워하며 술자리를 끝내고 나면
언제나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을 수 있으려나?⁷⁾

이 시는 何遜이 강주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들과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면서 지은 離別詩로 동쪽으로 흘러간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뒤 다시는 돌

6) 曹植『曹子建集』 권1 臺灣 商務印書館, 1967.
步登北邙阪, 遙望洛陽山. 洛陽何寂寞, 宮室盡燒焚. 垣牆皆頓擗, 荊棘上參天. 不見舊耆老, 但覩新少年. 側足無行逕, 荒疇不復田. 遊子久不歸, 不識陌與阡. 中野何蕭條, 千里無人煙. 念我平常居, 氣結不能言.

7) 『古詩觀止』 권1 235쪽.
歷稔共追隨, 一旦辭群匹. 復如東注水, 未有西歸日. 夜雨滴空階, 曉燈暗離室. 相悲各罷酒, 何時同促膝.

아오지 못함을 빗대어 자신도 강주에 돌아오기 쉽지 않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밤비 내리는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별의 술자리와 그 속에서 동료들과 기약 없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어 西晉의 潘尼의 「送盧 陽景宣詩」⁸⁾와 같은 작품을 보면 玄學수양을 통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는 玄學적인 태도로 인생에서 겪게 되는 離合集散을 달관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東晉의 離別詩는 점차 玄學의 영향에서 벗어나 敘事·抒情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陶淵明의 「與殷晉安別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려서부터 어울려 지낸 것도 아닌데
 한번 만나고는 마음을 다해 사귀었네.
 한 두 밤을 함께 자며 청담을 나누었더니
 더욱더 지기임을 알게 되었다.
 작년에 내가 남촌에 살게 되어
 잠시나마 서로 이웃이 되었지.
 지팡이 짚고 마음껏 함께 놀러 다니고
 같이 오래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었지.
 벼슬하고 은거하여 처지가 다르니,
 언젠가는 헤어질 줄 알고 있었지만,
 뜻밖에 헤어질 날이 벌써 닥쳐와
 이 봄에 떠나게 될 중이야?
 사랑살랑 서쪽에서 바람 불어오고
 유유히 동쪽으로 구름 떠나간다.
 천리 밖 산천을 사이에 두고

8) 王叔岷 『钟嵘诗品笺证稿』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1992. 47쪽.

楊朱焉所哭, 歧路重別離. 屈原何傷悲, 生離情獨哀. 知命雖無憂, 倉卒意低回. 歡氣從中發, 灑淚隨襟頹. 九重不常鍵, 閭闔有時開. 愧無貯衣獻, 貽言取儲懷.

웃으며 이야기 나누기는 어려울 듯하네.
 훌륭한 인제는 세상에 숨는 일 없겠지만
 강호엔 빈천한 이들이 많다네.
 만약 지나갈 일 있으면
 옛 친구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게나.⁹⁾

이 시는 태위의 참군이 되어 떠나는 殷晉安과의 이별이 아쉬워 지은 離別詩이다. 殷晉安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지기까지를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수법으로 離情을 드러낸 것으로 敘事手法을 운용하여 옛 우정을 回憶하고 현재의 惜別의 感情을 심화시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淵源을 바탕으로 唐代의 離別詩는 내용도 풍부해지고 數量도 많아졌으며 離別의 感情외에 다른 사상 감정들까지 혼재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離別의 情에 대한 표현 외에 자신의 理想追求·사회현상에 대한 관심·建功立業에 대한 의지 등을 離別詩에 加味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唐以前의 離別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특히 唐代에는 文人들만이 詩를 가지고 贈別하는 특허가 무너졌다. 離別詩 보급이 사회 各계各층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唐代 離別詩는 社會化·民間化·多樣化되는 특징을 내재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文人들 사이에 오고 가던 離別詩의 종류도 受贈뿐 아니라 親人들의 贈別·情人들의 贈別·市井贈別·隱逸 贈別·君臣贈別·邊塞贈別·官場贈別 등등으로 영역이 크게 확대 되었다. 무엇보다도 唐代 離別詩의 가장 典型的 特徵은 大衆化되고 慣用化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7세의 無名 여아가 지었다는 「送兄」이라는 離別詩의 우수성만 보더라도 唐代 離別詩가 얼마나 大衆化되고 慣用化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9) 陶潛『陶淵明集校箋』上海古籍出版社, 1996. 79쪽

遊好非少長, 一遇盡殷勤. 信宿酬清話, 益復知爲親. 去歲家南里, 薄作少時鄰. 負杖游從, 淹留忘宵晨. 語默自殊勢, 亦知當乖分. 未謂事已及, 興言在茲春. 飄飄西來風, 悠悠東去雲. 山川千里外, 言笑難爲因. 良才不隱世, 江湖多賤貧. 脫有經過便, 念來存故人.

헤어지는 길에 구름이 막 일어나고
 이별하는 정자에는 때마침 나뭇잎이 날린다.
 탄식하노니, 사람은 기러기와 달라서
 한 줄 지어 돌아오지 못하는 구나.¹⁰⁾

이 시는 오빠와 누이간의 깊은 情이 시속에 배어있을 뿐 아니라 7세 여아가 지었다고 보기에 표현 예술기교와 필법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이는 唐代에 이별시 창작이 얼마나 관용화 되어 있었고 대중화 되어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3. 唐代 離別詩 興盛의 原因과 特徵

본래 典型이란 어떤 유형에 대해 대표적·모범적·이상적인 표현을 지칭하며, 典型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 놓여있는 어떤 특정한 사회상과 내부적 모습의 대표적인 성질, 또는 그러한 성질이 작품 안에 반영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唐代 離別詩가 갖는 전형적 特徵은 唐代 사회에 漫然했던 특정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唐代 사회 내부 모습의 대표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表象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唐代 離別詩가 흥성했던 원인은 그가 내재하게 되는 典型的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생활이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던 唐代에는 漫遊·求官·游學·생업을 위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이동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여기에 入幕·落第·遷適·避亂등의 현상이 더해져서 離別詩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全唐詩』를 보면 離別詩가 약 13~14%에 해당되며¹¹⁾ 『唐詩別裁集』에는

10) 『全唐詩』 권799 臺北 宏業書局, 1982. 8983쪽.

別路雲初起, 離亭葉正飛, 所嗟人異雁, 不作一行歸.

11) 김준연 「唐代 送別七律 常用詩語 研究」 중국문학 41집 2004년

北京大學 中國語文學界에서 개발한 『全唐詩電子檢索系統』을 이용, 詩題에 ‘送’字가 포함된 작품을 검색해보면 全唐詩 48900首 가운데 약 10프로에 해당되는 數量을 점유한

전체 수량 대비 약 16%에 해당되는 300여수가 실려 있고, 『唐詩三百首』에는 약 12%에 해당되는 30首의 離別詩가 記載되어 있다는 數量的 상황에서만 보아도 唐代 離別詩가 唐詩가운데 주요한 위치를 점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唐代 離別詩 興盛의 原因을 살펴보면 첫 째, 唐代에는 離別이 중시되어 離別 儀式이 번성하였으며, 離別詩를 贈詩하는 기풍이 보편화되었다. 唐代에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성공에 대한 욕망도 증대되었고 고향을 떠나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획득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에 반해 교통과 통신은 落後되어 있어 離別 후의 前途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唐人들은 離別을 중시했다. 이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대한 餞送의 禮를 갖추었다. 唐 이전 送別장면은 상대적으로 간단했는데, 唐代에 이르러 送別의식이 번성하게 되었으며 餞別 장면이 융숭해졌다. 이때 반드시 離別詩를 나누는 기풍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舊唐書·司馬承禎傳』¹²⁾을 보면 皇帝역시 친히 餞別宴에 참석하고 離別詩를 贈詩했던 상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全唐文』에도 “마침내 모두 詩를 지어 여정을 떠나게 된 것을 위로했다.(終皆賦詩以慰行旅)”¹³⁾ 혹은 “여럿이 詩를 짓고 성대하게 송별연을 하였다.(群公賦詩以光榮餞.)”¹⁴⁾등과 같은 末尾 글이 자주 등장한다. 張籍의 「送裴相公赴鎮太原」詩에도 “친자가 친히 누대에 올라 가 배웅을 하고 조정 관료가 모두 나와서 길가에서 작별인사를 하네. (天子親任樓上送, 朝官齊出道傍辭.)”¹⁵⁾와 같은 送別 장면에 관한 묘사가 등장한다. 또 賀知章이 연로하여 歸隱하는데, 당 현종이 술선하여 시를 지어 送別의 뜻을 전하니 群臣들이 앞 다투어 詩를 지어 贈別했다¹⁶⁾는 기록도 눈에 띈다. 이처럼 唐代는 帝王·公卿·平民까지 모두 送別에 참여했고, 그들 중 일정한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離別詩를 짓고 이를 서로 나누었다.

다고 밝혔다.

12) 劉 『舊唐書』 권121 隱逸編 北京 中華書局 1975.

13) 全唐文新編編輯委員會 『全唐文新編』 吉林文史出版社, 2000. 59쪽.

14) 『全唐文新編』 168쪽.

15) 王雲五主編 國學基本叢書 『張司業詩集』 권4 臺灣 商務印書館, 1968. 31쪽 .

16) 宋 何文煥 『歷代詩話』 「全唐詩話」 권1 · 『舊唐書』 賀知章 本傳등의 기록 참고.

두 번째로 唐代에는 詩歌 기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唐代 離別詩 興盛의 원인이 되었다. 唐代는 詩歌를 보편적으로 愛好하였는데 唐代의 詩는 감정을 전하고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사회 교제의 수단으로 愛用되었다. 唐代 사람들은 詩歌 酬唱으로 교제를 하고 立身揚名을 위한 行卷·溫卷이 성행함에 따라 詩歌의 정서적 기능보다는 기능적 특징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離別詩 흥성을 촉진시켰다. 이에 離別詩의 기능적 특징이 강화되어 唐代 離別詩는 떠나보내는 자가 떠나는 자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실용적인 기능까지도 갖게 했다. 잘 써준 離別詩 한 장을 부임지 혹은 편적지에 들고 가서 그 지역의 관계자에게 보이면 특별한 보살핌을 얻기도 했다.¹⁷⁾ 이처럼 離別詩를 써서 贈別하는 것은 離別時 주고받는 귀중한 禮物이 되었는데 이는 唐代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수한 사회적 기풍이 되었다.

세 번째 唐代는 音樂과 詩歌의 결합이 前에 없이 극성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離別詩의 발전을 촉진했다. 離別詩 가운데 秀作들은 唐代 樂曲이 붙여져서 널리 불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王維의「送元二使安西」¹⁸⁾가「渭城曲」으로 불리게 되고, 王昌齡의「芙蓉樓送辛漸」¹⁹⁾이 유행하는 樂曲으로 불리게 된 것은 離別詩와 音樂결합의 좋은 例가 된다.

이와 같이 唐代 離別詩의 흥성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생활모습의 特徵·문화적 特徵과 심리적 慣習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離別詩를 흥성시킨 원인들은 唐代 離別詩의 典型적 特徵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도 되었다.

17) 『全唐詩』 권354, 3971쪽.

18) 王雲五主編 國學基本叢書『王右丞集』 권14, 310쪽.
渭城朝雨 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19) 『全唐詩』 권143 1449쪽.
寒雨連江夜入吳, 平明送客楚山孤. 洛陽親友如相問, 一片 心在玉壺.

4. 唐代 離別詩의 詩想 전개방식과 意象의 활용

1) 唐代 離別詩의 詩想전개 방식

唐人들은 혼한 離別의 상황에서 離別詩를 주고받으며 離別의 슬픔만을 相殺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離別후 맞이하게 될 前途에대한 희망 또는 웅대한 壯志도 함께 詩化했다. 唐代 離別詩는 단순히 離別만을 슬퍼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詩意가 풍부하게 담기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에 離別時의 고통을 敘事하는데 그치지 않고 送別할때 주변 경물에 대한 묘사·정성스런 饒別宴·그간의 깊은 우정·經世濟民의 壯志등을 풍부하게 담아 詩意의 확대를 이룬 것이다.

이는 唐 이전과는 다른 詩想전개의 特徵을 지니게 하였다. 唐 이전 離別詩는 敘事的 성분이나 敘景的 성분 보다는 離別에 관련된 敘情的 성분이 주요하였지만 唐代의 離別詩는 初唐 宮庭詩人의 대량의 창작을 통해 離別之地·離別之景·離別之情이 조합되어 만들어진다는 하나의 고정된 格式을 갖게 되었다.²⁰⁾

더욱이 盛唐시기에는 주변의 객관적인 경물을 빌어 字間·行間에 깊은 이별의 情을 표현함으로써 내용적 풍부함에 심미묘사 技巧의 성숙이 더해져 충분한 예술미를 갖추게 되었다. 中晚唐에 역시 이별시는 번성하여 내용적인 확대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詩境을 개척하였고, 詩歌 양식이 풍부해졌는데 이 역시 中唐代 主要 詩人群인 韓愈·孟郊·元·白居易가 주도한다.²¹⁾ 中晚唐 離別詩는 그 시기 사람들의 羈旅之思와 離別의 고통을 그렸을 뿐 아니라 盛唐 시인이 그려내지 못한 唐이 쇠퇴하면서 빚어낸 사회의 갖가지 그림자를 민감하게 담아냈다.

20) 許總 『唐詩史』 上冊 江蘇教育出版社 1994.6. 380쪽.

21) 趙翼 『北詩話』 卷4 臺北 廣文書局 1971.

2) 唐代 離別詩 속 主要 意象

이러한 내용적 특징을 갖는 唐代 離別詩는 典型的인 意象을 사용하여 이별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慣用的인 意象의 활용을 통해 공유를 원했다. 古來로 중국인들은 주관적인 사상이나 관념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象을 사용하여 말하려는 뜻을 표현하려 했다. 이에 관해 劉 勰이 『文心調龍』에서 문예창작의 각도에서 意象을 처음 설명한 후 意象은 주로 내재된 情緒와 외부 사물이 상호 융화되고 융합된 符合物으로써 객관 景物을 주관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中國 古典詩 속 意象의 활용은 詩人의 주관적인 心象과 주변의 객관적인 物象이 詩속에서 융합된 것을 말한다.

唐代 離別詩에는 몇 개의 意象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典型的으로 사용되는 주된 意象들은 長亭·南浦·楊柳·夕陽·酒·月 등이다. 상징성과 함축성이 풍부한 이들 意象은 詩속에 표현된 離別의 情感을 풍부하게 했다. 典型的인 몇 개의 意象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前人들의 意境과 情調를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唐代 詩人들은 자신이 離別時 느끼는 審美 情感을 가장 훌륭하게 媒介하여 전달해줄 표준화된 意象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唐代에는 餞別宴이 크게 흥성했고, 이러한 餞別宴에 참석하는 文人이라면 즉흥적으로 이별시를 선물하는 것이 상례였던 사회분위기와도 연관이 깊다. 몇 개의 주된 意象에 함축된 의미를 정형화하고 典型化 함으로써 독자의 감화력을 增加시키려고 했다. 詩인이 느낀 개별 情緒를 개인적 감정으로 特化시켜 처리하지 않고 시인과 독자 모두가 익숙한 典型的인 意象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력과 감화력을 순간적으로 폭발시켜, 작자와 감상자 모두가 동시에 침울한 이별의 정서로 빠르게 젖어드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이때 주로 사용되었던 長亭·南浦·楊柳·夕陽·酒·月 등의 意象들은 각기 典型的인 특징을 함축하고 있어 이들을 適時에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離別의 心象을 전달할 수 있었고 離別의 주제에 대한 표현을 深化할 수 있었으며 離別詩의 예술성과 感化力을 높일 수 있었다. 이에 唐代 離別詩에 사용된 主要意象

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fi

秦漢시기 大道에 亭을 설치하였는데, 行者에게 휴식, 혹은 餞別을 제공할 때 쓰였다. 庾信의 「哀江南賦」에 나온 “十里五里, 長亭短亭”²²⁾의 시구를 보면 十里마다 長亭이 五里마다 短亭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柳宗元의 「離觴不醉至驛 寄相送諸公」은 영주를 떠나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쓴 시 역시 長亭의 意象이 사용되었다.

많은 주민들 전송하는데 홀로 술이 깨어,
가련하고 적적하게 장정에 도착했네.
형주에서는 고양의 술꾼 같은 짝을 만나지 못하니
하룻밤 봄추위가 청사에 가득하구나.²³⁾

長亭에서의 적막한 분위기를 표현함으로써 시인 심중의 이별에 대한 근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 李端의 「送袁稠游江南」 역시 가을날 長亭에서의 쓸쓸한 이별을 詩化한 詩이다.

강남엔 시든 풀이 펼쳐져 있는데,
십리에 장정이 보이네.
객은 떠나고 가을날 나뭇잎 떨어지는데
기러기 날아서 어둡고 침침한곳으로 사라진다.
빈 성에 차가운 비 가늘게 내리고,
깊은 뜰에 새벽 등은 푸르구나.²⁴⁾

22) 馬積高 『歷代辭賦總匯』 호남문예출판사, 1107쪽.

23) 『全唐詩』 권351, 3932쪽.

無限居人送獨醒, 可憐寂寞到長亭, 荊州不遇高陽呂, 一夜春寒滿下廳

북방시인들은 長亭을 離別詩의 意象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南方의 시인들은 南浦를 많이 활용했다. 詩歌속의 南浦는 장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찍이 굴원은 「九歌, 河伯」에서 “그대와 손을 잡고 동쪽으로 가서 미인을 남포에서 떠나보내네. (與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²⁵⁾라고 표현했고 江淹 역시 「別賦」에서 다음과 같이 南浦를 意象으로 활용하여 이별의 情恨을 노래했다.

봄풀은 푸르고
 봄물은 녹색 물결 이루는데,
 그대를 남포에서 배웅하니,
 이 아픔 어이해야하나?²⁶⁾

또 이와 같은 意象을 활용한 詩로 白居易의 「南浦別」이 있다.

남포에서 슬프디 슬프게 이별하는데,
 하늘하늘 가을바람 부는 가을이라.
 한번 돌아볼 때마다 간장이 끊어지는 구나,
 뒤돌아보지 말고 잘 가시오.²⁷⁾

이외에도 唐代 離別詩 가운데, 이별의 情恨을 심화하기 위해 南浦의상을 사용한 예는 매우 많다. 王維의 「送別」을 한편 더 살펴보자.

남포로 그대를 보내려니 눈물이 실처럼 흘러내리고

24) 『全唐詩』 권285, 3262쪽.

江南哀草遍, 十里見長亭. 客去奉搖落, 鴻飛入杳冥. 空城寒細雨, 深院曉燈青

25) 곽말약 앞의 책 24쪽.

26) 王雲五主編 국학기본총서 『江文通集』 7쪽.

春草碧色, 春水波, 送君南浦, 傷如之何!

27) 『全唐詩』 권441, 4928쪽.

南浦淒淒別, 西風秋. 一看腸一斷, 好去莫回頭.

동쪽 고을로 간다니 내 마음 서글퍼지는구려.
알려주게나, 친구가 초췌해져서,
낙양시절보다 못하다는 것을.²⁸⁾

ㄱfi

柳는 楊柳 또는 折楊柳라고 불리는데, 이별시에 자주 출현하는 이별의 정서를 촉발하는 중요한 의상중의 하나이다. 가장 빠른 출현은 『詩經』 「采薇」 “예전에 내가왔을 때 버들가지 한들한들거렸었지.(昔我往矣, 楊柳依依)”²⁹⁾에서 찾아질 수 있다. 특히 留와 諧음을 이뤄 예부터 이별할 때 버들가지를 꺾어서 선사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柳와 留는 諧音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이별의 증표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이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이별하는 이에게 선물하였던 것일까? 예로부터 버드나무는 사악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하여 ‘鬼怖木’이라고 불렸다. 버드나무를 꺾어서 이별할 때 건네는 것은 ‘가는 길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어서라고 한다. 또 버드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를 잘 내린다. 도로가 물가·북쪽·남쪽 어디서든 잘 자란다. 그리고 버드나무의 푸른 빛같은 활기찬 생명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별할 때 버드나무를 꺾어주는 것은 이처럼 떠나는 이가 버드나무처럼 어디를 가든 어디서든 굳센 생명력을 지니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李白의 「憶秦娥」를 보면 다음과 같다.

흐느끼는 통소 소리에
진아(秦娥)의 꿈에서 깨어나니,

28) 王雲五主編 국학기본총서 『王右丞集』 권14, 310쪽.

送君南浦淚如絲, 君向東州使我悲. 爲報故人憔悴盡, 如今不似洛陽時.

29) 金啓華主編 『詩經』 안휘문예출판사 2003, 361쪽.

장안 누대엔 달이, 장안 누대엔 달이,
해마다 버들 빛으로 푸르니,
과릉(陵) 이별 서럽기만 하구나.³⁰⁾

唐人들은 대부분 버드나무와 이별의 정한의 이러한 특수 관계를 설정하여 다층적으로 버드나무 意象을 통한 심미의식을 발휘했다. 王維의 「送沈子福歸江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양머들 나루터 다니는 이 드문데,
사공은 노를 저어 건너편 기슭으로 간다.
오직 봄빛 같은 그리움뿐인데,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그대를 배웅하고 돌아가네.³¹⁾

이 시에서는 그리움을 품고 떠나보내는 마음이 버드나무 잎의 춘색에 질게 드러난다.

ㄱ/ㄱ

夕陽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저녁때의 햇빛, 저녁 무렵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夕陽은 저녁놀이 드리운 저녁 무렵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저녁 무렵이란 시간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를 의미한다. 들에서 일을 하던 농부도, 朝庭에 나아간 관리도,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나선 동물들도 모두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때를 말한다. 이에 타향에서 혹은 타국에서 맞이하는 석양의 이미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돌아갈 때가 되었음에도 돌아갈 수 없는 적막함과 그리움이 절로 느껴

30) 『全唐詩』 권184 簫聲咽 秦娥夢斷秦樓月. 秦樓月, 年年柳色, 灞陵傷別.

31) 王雲五主編 國學基本叢書 『王右丞集』 권14, 311쪽.

楊柳渡頭行客稀, 罌師蕩槳向臨圻. 惟有相思似春色, 江南江北送春歸.

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석양은 타향에서의 느끼는 이별의 근심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시를 읽은 독자로 하여금 외롭고 쓸쓸한 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유용한 상징적 의상으로 여겨져 왔다. 먼저 王維의 「臨高臺送黎拾遺」를 읽어보자.

그대와 송별하고 높은 누대에 올라보니,
 냇물과 평원은 아득하여 끝없이 없구나.
 날은 저물어 새들은 돌아오는데,
 떠나간 이는 가서 소식도 없구나.³²⁾

이 시에서 王維는 석양 무렵 돌아올 때를 인지하고 동지로 돌아오는 새들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대비함으로써 이별의 情恨을 더 깊게 묘사했다. 이어서 盧綸「與從弟瑾同下第後出關言別」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을 나왔으나 해는 저물고 길은 멀어 눈물이 옷을 적시고,
 들판에 질펀하게 쑥이 우거진 옛 싸움터에 이르니 감개무량하다.
 해거름 때라 쓸쓸한 마을의 나무들은 끝 비에 을씨년스러운데,
 먼 곳 사찰의 종소리가 황혼의 햇빛 속에서 구슬프게 들려온다. ³³⁾

盧綸은 이 시에서 저녁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적막함과 쓸쓸함을 더할 나위 없이 표현했다. 이미 서울을 나설 때 날이 저물고(暮) 있었음은 갈 길이 먼 나그네의 설움을 강화해주었고, 어둑어둑할 때 내리는 비(昏殘雨)는 여기에 을씨년스러움까지 더해주는데, 마지막으로 석양 저녁머에서 들려오는 하루를 마감하는 사찰의 종소리는 더더욱 시인으로 하여

32) 王雲五主編 국학기본총서 『王右丞集』 권13, 295쪽.

相送臨高臺, 川原杳何極. 日暮飛鳥還, 行人去不息

33) 『全唐詩』 권276, 3131쪽.

出關愁暮一沾裳 滿野蓬生古戰場 孤村樹色昏殘雨 遠寺鐘聲帶夕陽.

금 이별의 슬픔에 더욱 잠겨들게 한다.

&fi

술은 일종의 특수한 인류문화요소로 인류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宮內 경사스런 典禮·군인의 出征宴에서부터 작게는 친구들의 모임, 일반적인 집안의 大小事에 이르기까지 술은 빠짐없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나 사람을 맞이하고 사람과 이별하는 연회 중엔 술은 더욱이 흥취를 돋우는 작용을 한다. 이에 이별에 임하게 되면 의례히 술을 차리고 은근히 술을 권한 후, 술에 취한 김에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애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별의 고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먼저 李嶠 「送李崱」을 읽어보면 이러한 例가 잘 드러나 있다.

해질 무렵 황폐한 교외에서 풍경은 마침 쓸쓸한데
이별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원정 나갈 말이 길가에서 울어대는 구나.
이별주 기울여 서로 나누고,
글을 쓰는데 눈물이 시제를 가리네.
어구수에서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각자 동서로 떠나네.³⁴⁾

李嶠는 이별을 직면함에 이별주를 나누자니 눈물이 눈앞을 가려 시제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岑參의 「送楊子」시를 한편 더 읽어보

34) 『全唐詩』 권58, 695쪽.

落日荒郊外, 風景正淒淒. 離人席上起, 征馬路邊嘶. 別酒傾壺贈, 行書掩淚題.
殷勤御溝水, 從此各東西”

자.

아쉬운 이별에 술 한 병을 더하고
갈림길에서 말채찍을 보내네,
그대 영강 상류로 가는 것을 보노라니,
새로운 달이 집안 뜰에 떠오르는 구나.³⁵⁾

岑參의 이 시에서 역시 이별을 아쉬워하며 술 한병을 더하고 서로 갈림길에서 갈 길을 재촉했음을 노래했다. 술이라는 意象을 빌어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 fi

달은 중국 고전 시가 중에 자주보이는 의상으로 이미 그리움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누각에 드리운 달빛은 끝나지 않는 고향에 대한, 혹은 헤어진 입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달은 고향집의 뜰에도 떠있고 나그네가 있는 타향의 하늘에도 떠있는 인류공유의 달이다. 이에 나그네와 고향집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역할을 한다. 달은 영원하며, 時空을 초월하고古今을 관통하기에 인류의 興亡盛衰를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달은 인류 공유 존재로 각지에서 서로 한결같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시인의 그리움을 激發하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의미를 지니는 달은 이별과의 관계 역시 긴밀했다. 달은 본래 둥글었다가 이지러지고, 또 다시 둥글어진다. 이는 인간의 離合과 비슷한 모습이다. 또한 달은 온 대지를 두루 비추고, 하늘과 바다 끝까지 없는 곳이

35) 『全唐詩』 권200, 2081쪽.

惜別添壺酒, 臨岐贈馬鞭. 看君頰上去, 新月到家圓

없다. 때문에 이것은 이별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 王昌齡의 「送魏二」에도 달을 매개로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있다.

취해 이별하는 강루(江樓)에는 곶과 유자 향기 나고
강바람은 비를 끌어들여 배 안으로 들이치니 서늘하구나.
그대를 생각하니 멀리 상산에는 달만 떠 있고
만 리 밖에서 길게 우는 원숭이소리 시름겹게 들리는 구나.³⁶⁾

王昌齡의 다른 이별시 「送柴侍御」에도 몸은 다른 곳에 있어도 하나의 달 아래 있음이 표현되어 있다.

원수는 물결을 통해 무강과 이어져있으니,
그대를 보내도 이별이 슬프지 않네.
푸른 산은 한 줄기로 이어지고, 구름과 비도 함께하니,
밝은 달이 비추는 곳이 어찌 서로 다른 곳이겠는가? ³⁷⁾

王昌齡은 물길은 물길대로 이어져 있고, 산은 산대로 한줄기로 이어져 있으며 달도 온 대지를 함께 비추니, 헤어져도 헤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라고 이 시에서 말하고 있다.

이처럼 唐代 離別詩는 抒情과 敘景을 알맞게 배합하여 詩境을 형성하는 과정에 적절한 상징성을 갖는 意象을 사용함으로써 詩속 이별의 情恨을 강화해서 표현했다. 詩 속에 표현된 특정 자연물, 특정 장소 등은 특정한 상징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적절한 표

36) 『全唐詩』 권143, 1447쪽.

醉別江樓橘柚香, 江風引雨入船涼. 憶君遙在湘山月, 愁聽清猿夢裏長

37) 『全唐詩』 권143, 1451쪽.

沅水通波接武岡, 送君不覺有離傷. 青山一道同雲雨, 明月何曾是兩鄉.

현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送別장소의 버드나무·여행 도중의 기러기·정처 없이 떠도는 뜬구름·원숭이 울음소리 등은 시인이 詩를 쓰는 實景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시인과 독자가 근심과 그리움을 공유할 수 있는 意象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唐代 離別詩 속에 쓰인 意象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5. 나오며

中國 離別詩는 送別詩·餞別詩·留別詩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간적·심리적 隔離에서 오는 離別의 情緒를 詩化한 詩를 말하는 것이다.

漫遊하면서 浩然之氣를 기르고 救世濟民과 立身揚名을 인생목표로 삼는 고대 중국인들의 이별의 경험은 혼란한 것이었다. 이에 中國의 離別詩는 『詩經』에서 淵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각 시대의 사회문화의 발전과 함께 변화 성장해왔다. 특히 생활이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던 唐代에는 漫遊·求官·游學·생업을 위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이동이 더욱 빈번했고 여기에 入幕·落第·遷適·避亂등의 현상이 더해져서 離別詩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唐代 離別이 많은 만큼 황제부터 민간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별 의식을 중시하였고 이때 離別詩를 작성하여 나누는 풍조가 일반화되었다. 이에 이별시는 양적발전과 함께 새로운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離別詩는 단순한 이별의 情을 나누는 문학적 기능을 넘어, 떠나보내는 자가 떠나는 자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실용적인 기능까지 갖게 되어, 잘 써준 離別詩 한 장은 부임지 혹은 폼적지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증표가 되기도 했다.

또한 唐代 離別詩는 전형적인 意象을 사용하여 이별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관용적인 의상을 통해 共感을 원했다. 이에 唐代 離別詩는 몇 개의 대표적인 意象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된 意象들은 長亭·南浦·楊柳·酒·月 등이었다. 이 의상들은 시인이 개별 이별의 정서를 개인의 감정으로 특화시키지 않고 시인과 독자가 익숙한 전형적인 의상을 통해 표현력과 감화력을 순간적으로 激發하여, 시인과 감상자 모두가 동시에 침울한 이별의 정서로 빠르게 젖어들게 했다. 唐代 離別詩는 이와 같은 양적 변화발전과 질적 변화발전 그리고 전형적인 意象의 활용을 통해 전형적인 특징을 형성했다.

사실 中國 離別詩에 관한 未決과제가 여전히 산재해있다. 送別詩·餞別詩·留別詩등 類似 이름을 갖는 離別詩들에 관한 차별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唐代 離別詩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도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1.
- 金啓華 主編 『詩經』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2003.
- 雷慶翼, 『楚辭正解』, 上海, 學林出版社, 1996.
- 彭定求等 『全唐詩』 中華書局 1960.
- 董浩 『全唐文』 上海古籍出版社 1990.
- 計有功 『唐詩紀事』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劉昫等 『舊唐書』 中華書局 1975.
- 歐陽脩 宋祁 『新唐書』 中華書局 1975.
- 蕭統 『文選』 中華書局 1977.
- 蔡鎮楚 著 『中國詩話史』 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88.
-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서울 同和出版公社, 1984.
- 張步雲 『唐代詩歌』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90.
- 繆鉞·張志烈 『唐詩精華』 成都 巴蜀出版社 1995.
- 高棅 『唐詩品彙』 上海古籍出版社 1982.
- 邱燮友 註譯. 『新譯唐詩三百首』 臺北 三民書局, 1986.
-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1.
- 丁福保 『歷代詩話續編』 中華書局 1983.
- 黃生等撰 『唐詩評三種』 黃山書社 1995.
- 傅璇琮主編 『唐才子傳校箋』 中華書局 1987.
- 沈德潛選注, 『唐詩別裁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 傅璇琮, 『唐代詩人叢考』, 北京, 中華書局, 1980.
- 蕭滌非等 『唐詩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83.
- 張占國 『中國歷代詩詞分類品讀-咏懷卷』 學苑出版社 2006.
- 沈祖棻 『唐代七絕詩淺釋』 上海古籍出版社 2000.
- 杜曉勤 『初盛唐詩歌的文化闡釋』 東方出版社 1997.
- 陳貽焮 『唐詩論叢』 湖南人民出版社 1980.

- 陳伯海『唐詩學引論』知識出版社 1988.
劉開揚『唐詩通論』四川人民出版社 1981.
游國恩等『中國文學史』人民文學出版社 1862.
何方彤『唐詩審美藝術論』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7.
王雲五主編『論語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江陰香 譯註『詩經譯註』北京中國書店 1983.
곽말약『屈原賦今譯』上海 상해서적출판사.
全唐文新編編輯委員會『全唐文新編』吉林文史出版社, 2000.

Abstract

Study on a typical feature of parting poem in Tang dynasty

Go, Jin-a

Ancient Chinese people like to learn to walk around, so farewell was common. So the start of parting poem is very fast and can be found in the 'ShiJing'.

In the Tang Dynasty, parting poem has been specially developed. There are three reasons, first, in the Tang Dynasty, especially there was a lot of traveling. From the emperor to the commoner, they emphasized consciousness of farewell. When they parted, must share poetry. Second, a new function has occurred in parting poem. Beyond the function to convey emotion and meaning, it was noted as a means of social intercourse. So the Tang Dynasty had a large number of parting poem, it's got a new feature. The parting poem like a recommendation letter or introduction. Third, The combination of music and poetry was rife. Many famous poems were made into songs. Like this the prevalence of parting is not accidental,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age conditions.

Tang parting poems not write about the pain of parting, write about scenery around, a big farewell party, their deep friendship. So Parting poem in Tang dynasty is different from previous one. Before the Tang dynasty, the main idea of the parting poem is the sorrow of parting. but After the Tang dynasty, Poets form a complex structure. It made of parting time, parting place, heartbreak.

They enjoyed using typical expressions in parting poem. Because it is easy to feel same emotion. So South port·Willow·sunset·alcohol·Moon are constant use. They allowed poets and readers to sympathize. Parting poem in Tang dynasty achieved universality of parting sorrow and artistic value.

Key words : typical feature, parting poem, Tang, WangBo, WangWei, LiBai, Wang Chang-ling, LiuZongYuan, South port, Willow, sunset, alcohol, Moon

투 고 일 : 2017. 7. 10. / 심 사 일 : 2017. 7. 15.~ 2017. 8. 15. / 게재확정일 : 2017. 8. 20.